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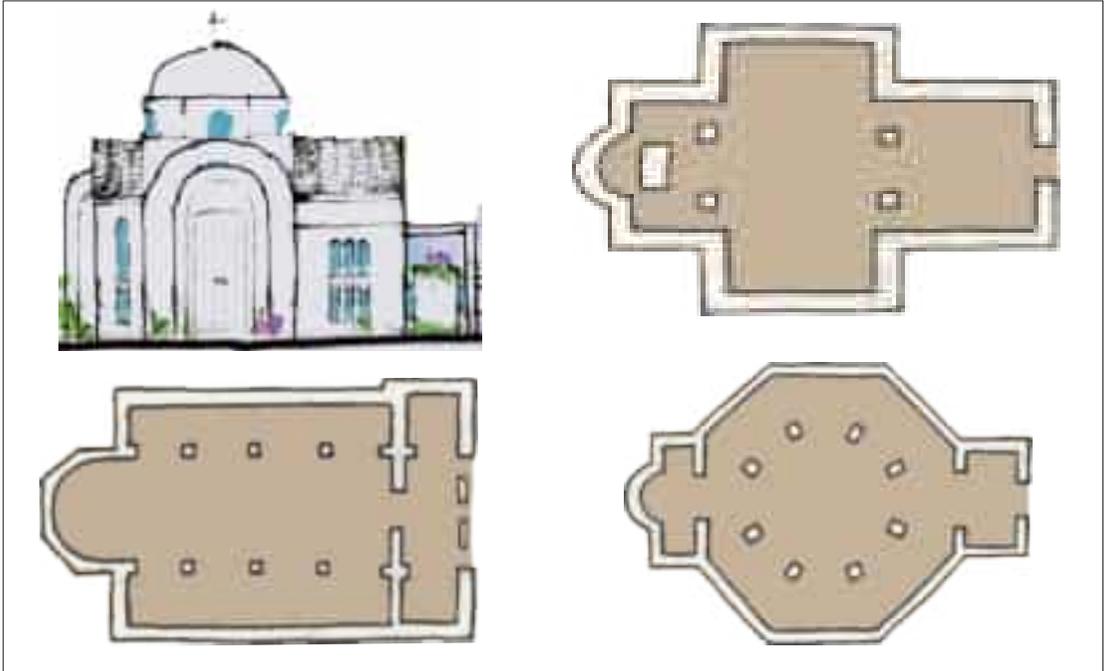


정교회주보

제2506호

2025.01.05

한국 정교회 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02)362-6371 | Fax.(02)365-2698 | orthodoxkorea.org



<성당의 구조>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올산 성 디오니시오스 성당의 최초 건축 설계 스케치와 비잔틴 양식의 십자가 형식, 원주 축은 팔각각주 형식, 바실리카 형식의 정교회 성당 단면도 그림이다. 비잔틴 양식 중에 '십자가형 모양의 돔 형식'은 콘스탄티노플에서 처음 등장했고 이후 비잔틴 지역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돔이 있는 십자가형 모양의 성당은 비잔틴 양식을 대표한다. 이 양식의 특징은 사각형의 건물 안팎에 하나 또는 다섯 개의 돔이 있는 십자가 모양이다. 북쪽과 남쪽에 공간을 확보하여 내부를 넓혔을 뿐만 아니라 아름다움과 우아함을 더했다.

신현 축일 전 주일
성 테오페토스 순교자
성 싱글리뜨기 수녀
(제3조 • 조과 복음 6)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

- 제3조 부활 찬양송 82
- 신현축일 전 찬양송 150
- 성당 찬양송
- 신현축일 전 시기송 150
- 사도경 : 디모테오 후 4,5~8 ... 150
- 복음경 : 마르코 1,1~8 150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새 해

주여, 당신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낡은 마음을 도려내고 새로운 마음을 이식하는 수술을 감행하기 전에 당신께서 먼저 “너희 몸에서 돌처럼 굳은 마음을 도려내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리라”라고 예언자의 입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셨나이다. 주여, 새해에는 그런 새로운 마음을 저에게 주소서. 새해에는 당신의 사랑과 형제들의 사랑의 고동 소리가 쉬지 않고 울리는 자비롭고 관대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저에게 주소서.

당신께 빌며 간구합니다 : “하느님, 깨끗한 마음을 새로 지어 주시고 깨끗한 뜻을 새로 세워 주소서.”(시편 51,10) 그때에만, 진정 그때에만 새로 다가오는 한해가 진정 새롭고 복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성서의 메아리'[정교회출판사] 중에서

2025년 신년 메시지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시작이 좋지 않으면 결말도 좋지 않다”고 고대 비극 시인 에우리피데스가 말한 바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총과 자비로 이제 막 시작된 2025년 새해가 좋은 결말을 맺기 원한다면, 시작을 잘 맺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새해를 맞아 중요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끈기와 강한 영적 노력으로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새해를 맞아 세울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목표는 바로 그리스도를 더 많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자비로우신 아버지, 동정심 많은 형제, 참된 빛, 영원한 기쁨, 그리고 ” 모든 것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진실한 사랑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악마와 악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슬픔과 절망과 어둠과 죽음이 우리를 건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기쁨의 근원, 희망의 근원, 빛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수많은 증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스스로를 “나는 세상의 빛이다”(요한 8,12)라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야”(요한 11,25)라고 소개하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너희의 기쁨을 아무도 빼앗을 수 없”(요한 16,22)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바울로 사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희망”(1디모테오 1,1)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들, 순교자들, 수도자들 등 우리 교회의 모든 성인들은 그리스도를 신성한 사랑으로 사랑했으며, 자신들 마음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기에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한 예로, 현대의 성인인 **쁘르피리오스** 성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이렇게 조언합니다. “그리스도 없는 삶은 삶이 아닙니다. 다 끝난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행동과 생각 속에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다면, 당신은 그리스도 없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인은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친구이시고, 우리의 형제이시며, 모든 선함과 아름다움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친구로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친구로 삼았다. 모르겠는가? 우리는 형제다. 나는 지옥을 손에 들고 위협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가 나와 함께 삶을 기뻐하길 바란다.’”

그렇기에 **쁘르피리오스** 성인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권면을 전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고, 다른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보다 중시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며, 생명의 근원이시고, 모든 갈망의 정점이십니다. 모든 아름다움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해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도록 ‘그리스도 중심’의 목표를 세웁시다. 그분을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영혼과 온 정신과 온 힘을 다하여” 사랑합시다(마르코 12,30 참조).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하느님의 모든 축복을 삶 속에서 누리게 될 것이며, “이웃을 내 몸 같이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마르코 12,31 참조).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각자 “세상의 빛”(마태오 5,14)과 “세상의 소금”(마태오 5,13)이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함께하는 성직자들과 협력자들과 함께, 여러분 모두에게 2025년 새해가 주님의 축복으로 가득 차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이 건강과 장수를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한국의 대주교이자 일본의 엑사르호스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을 위한 기도

자비로우신 주 하느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낮추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나라를 깊은 슬픔에 빠뜨린 이번 여객기 참사로
세상을 떠난 119명의 당신의 종들을 위해 간구하고 간청하오니,
그들의 영혼이 평안히 안식하게 해주소서.

또한, 고인들의 가족, 친구, 지인들에게
하늘로부터 위로와 힘을 내려주시어
이 갑작스럽고 비통한 죽음이 가져온
큰 슬픔과 고통의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사랑하는 이들을 다시는 볼 수 없어
고통받는 모든 이들의 상처받은 영혼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아픔을 달래주소서.
당신은 우리의 유일한 위로자이자 기쁨이시며,
우리의 확실한 희망과 흔들림 없는 믿음은
이제와 항상 또 영원히 당신께 있나이다.
아멘

2024년 12월 29일을 기억합니다.



요한 박인곤 신부님의 축일을 축하드립니다

오는 7일(화) 축일을 맞이하는 요한 박인곤 신부님께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하느님의 축복과 은총으로 항상 건강하셔서 주님의 양 떼를 잘 이끌어 주시길 기원합니다.

주간 예배 안내

- * 1월 6일(월)
주 예수 그리스도 신현 축일
(성 대 바실리오스 성찬예배)
- * 1월 7일(화)
성 세례자 요한 연관 축일
오전 9시 : 조과 및 성찬예배
(지역 성당 예배는 해당 성당에 문의)

■ 가정 성수식 안내

정교회 전통에 따라 신현 축일을 맞아 가정 성수식을 거행합니다. 원하는 가정은 각 신부님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후보 공지

성당과 성물 소개

하느님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새해에는 후보 1면에 정교회 성당 구성 요소와 전례에서 사용하는 성물을 소개합니다. 성물의 용도와 의미에 대한 바른 이해를 위해 기획하였습니다. 비잔틴 양식의 정교회 성당 구조와 성당 내부의 모든 성물을 다룰 것입니다. 우리 암브로시오스 대주교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 대교구 의회 공고

1월 29일(주일) 오후 3시부터 온라인으로 '제21회 대교구 의회'를 개최합니다.

1부에는 세례신자, 예비신자 모두 참석할 수 있습니다. 2부에는 의안 결의와 발언권을 가진 의회 의원들만 참석합니다.

참석하시는 일반 신자들께서는 대교구 사업과 교회 발전 방향에 대해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의 줌 링크 주소는 나중에 각 성당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알림

■ 신자 총회 공고

각 성당의 2025회계년도 정기 신자 총회를 개최합니다. 지난해 결산과 새해 예산, 영적 사업, 주요 현안 등을 논의합니다. 만 18세 이상 세례신자는 꼭 참석해 주십시오.

- 1월 5일(오늘) - 서울 성당
- 1월 12일(다음 주일) - 부산, 인천, 전주, 춘천, 울산 성당

■ 부산 성당 장례식

지난 12월 20일(금)에 우크라이나인 차바노바 나지아 교우가 안식하셔서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평안하게 안식하시길 기원합니다.

■ 부산 성당 세례성사

지난 12월 21일(토), 러시아인 덴 다니엘이 키릴 성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주님의 축복과 은총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인천 성당 세례성사

지난 성탄절 이브에 세례·견진성사를 통해 니콜라오스 최성봉, 마태오 이승민, 이사기오스 이삭, 아가타 김진희 등 4명의 예비신자가 정교인이 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 서울 성당 결혼성사

지난 주일(12월 29일), 성 니콜라스 대성당에서 에피파니오스 수도신부, 안토니오스 임종훈 신부의 집전으로 Igné Roux (Ignatius) & Jocelyn Nunez (Lucia)의 결혼성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축하합니다.